

5·31지방선거 D-30

류동완 광주시선관위 상임위원

“매니페스토운동 적극 전개 유권자중심 선거 유도할 것”

(참공약 선택하기)

5·31 지방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과 정책 선거 유도를 위해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및 후보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투표참여 홍보활동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공천관련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비방·흑색선전, 불법 사조직 운영 등 후진국형 5대 선거범죄 추방을 위한 단속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상황과 유형별 사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 변화로 각 정당의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당비대납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예년 보다 일찍 발생했다. 광주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돈공천,비방·흑색선전 등 후진국형 범죄 안타까워

143건을 적발해 13건은 고발, 12건은 수사의뢰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가 각각 51건, 2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품·음식물 제공도 21건이나 된다. 지난 2002년 선거때 동일 시점의 적발 건수 108건과 비교하면 32.4%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공무원 선거개입과 당비대납 등 내연면에서 보면 아직도 후진국형 선거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유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엄격해졌다. 광주·전남 상황은?

▲앞에서 예시한 후진국형 5대 선거범죄의 경우 신고자 포상금을 최고 5억원으로 올렸다. 광주에선 공무원 선거개입을 제보한 A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5명에게 7천580만원, 전남은 4명에게 1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다. 과태료는 14명에게 1천88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가운데 공무원 선거개입 및 음식물 제공과 관련 10명이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이첩한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는 ‘돈 공천’사실이 잇따라 확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비 대납과 공천헌금 파문, 경선 집중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남 정치 1번지’인 광주지역 선거관리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류동완 상임위원(1급)을 만나 선거 관리방향과 선거법 위반 실태,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운동 확산 및 투표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인되고 있는데.

▲당내 경선 탈락자 등을 중심으로 소문은 떠돌고 있으나 사실 확인 조사가 들어가면 ‘소문으로만 들었다’는 경우가 많아 광주·전남에선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며칠 전에도 중앙선관위 특별조사팀이 와서 조사했으나 구체적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해 ‘돈 선거’를 근절토록 하겠다.

-매니페스토가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의 확산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매니페스토에 대해 아직까지도 생소하다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다. 선관위는 이를 헛 공약이 아닌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유권자의 심판

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참공약 선택하기’로 이름 지었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달 18일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각 당 대표자와 시범 선거구인 동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가졌으며 토론회와 설명회도 잇따라 열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는 ‘매니페스토 공약은행’을 오픈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1천 130건의 공약을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보급·활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9세 등 젊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 방안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만19세는 광주1만 9천여명, 전남2만5천여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위해 지난 2월 광주대에서 2천여명의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적극 홍보했고 각 대학 학보도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사설·광고를 게재

만19세이상 꼭 투표 참여 주인된 권리 행사하기를

재하고 있다. 아울러 상무프로축구단과 협의해 오는 27일 경기때 2만여명이 참여하는 투표참여 홍보를 추진 중이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투표율 제고 방안은?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지난 1998년 전국 52.7%, 광주 45.1%였고, 2002년에는 전국 48.8%, 광주 42.4%였다. 이번에는 5·31 선거인만큼 53.1%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웃음) 선거권은 주인된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투표 참여가 가족화합을 이룬다는 슬로건 아래 화분 및 냉온수기 설치 등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편안하게 바꿔나갈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정책선거이자 축제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작은 투표용지 6장에 큰 광주, 아름다운 광주가 담겨 있다. 빠짐없이 투표하여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사진=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부시 대통령, 탈북 김한미양 가족 백악관서 면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탈북자인 김광철씨 부부와 딸 한미양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이후 가장 감동적인 만남”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탈북자 김한미양(7) 가족 등을 면담한 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감동적인 만남 중의 하나였다”며 탈북자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날 낮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을 탈출한 한미양 가족과 김성민 북한자유방송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인권과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끝까지 일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참석자들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양 가족 등이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들어서자 한미양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서 번쩍 안아올렸고, 한미양

은 ‘사랑해요’라며 부시 대통령의 볼에 뽀뽀를 했다. 자신의 바로 옆 부통령 자리에 한미양을 앉힌 부시 대통령은 한미양이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선물받고 “멋 살아나. 정말 귀엽게 생겼다”고 말하는 등 면담 내내 특별한 관심을 표실했다.

한미양은 “부시 대통령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한미양 가족은 이날 ‘고맙습니다. 김한미’라고 쓴 부시 대통령 초상화와 선양총영사관으로의 탈출 사진, 탈북자와 북한 주민들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호소문, ‘서울 트레인’ DVD, ‘좋은 이웃’ 창간호와 5월호를 선물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양에게 책

갈피와 모자, 사랑용, 다른 참석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박힌 넥타이핀을 선물로 줬다.

‘김정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시 대통령의 질문에 김씨가 “기독교인으로서 응시할 수 없는 사탄이라고 본다”고 답변하자 부시 대통령은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인다고 했다”고 김씨는 밝혔다. 김씨는 이어 부시 대통령에게 ‘10만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을 구원해달라. 북한인권법을 강력히 실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케이(OK)”라고 답했고, “탈북자들이 외롭고 힘들다. 도와달라”는 호소에도 “오케이”라고 거듭 응답했다고 김씨는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하반기 국회 의사봉 누가 쥐나?

與 ‘교황선출 방식’ 도입...김덕규·임채정 2파전

열린우리당은 1일부터 이틀간 17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에 들어간다.

우리당은 소속 의원 142명에게 국회의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 1명을 써내도록 한 뒤 이를 집계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의원을 여당의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교황선출’ 방식을 원용한 것. 당내 최다선 의원 중 신망이 두터운 의원을 만장일치로

방증하는 셈이기도 하다.

현재 출마의사를 공식 밝힌 의원은 김덕규 부의장과 임채정 국회 통일의 교통상위원장 2명으로, 사실상 두 의원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 부의장측은 “부의장이 의장직을 승계하는 것은 순리”라는 논리로, 임 위원장측은 “현실감과 균형감을 갖춘 인사가 적임자”라고 서로 우위를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각종 당 행사에서 당내 소모임까지 교박교박 참석하며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혀온 김 부의장은 선거를 하루 앞둔 30일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걸거나 개별접촉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임 위원장도 주말 의원들과 개별접촉을 통해 ‘확답’을 받는 등 당권 지지 호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이제 국회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중심이 되고, 생산적,효율적인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계파별 세대결 양상’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 선거 이후 득표수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용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eafood' (바다) restaurant, featuring various seafood dishe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Daeyang' (태양광) real estate, promoting a 70% interest-free loan and other benefits for home buyers.